

대통령실에 'TF 구성'...국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李大統領, 광주 찾아 타운홀 미팅

李, 군공항 문제 '국가 책임' 강조
姜시장 "서남권 관문공항 만들어야"
金지사 "합의 이끌어 내도록 최선"
김산 "획기적 지원해야 설득 명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 관련기사 3면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해 광주·전남 최대 숙원인 공항 문제의 해법을 찾는 단초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란 주제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열어 이같은 군공항 이전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관련 입장을 정취한 뒤 "정부에서 (군공항 이전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나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TF에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주민,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점은 대충 나와 있지 않나"라며 "(통합 이전을 할 경우) 무안이 피해를 본다. 광주에서 1조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무안 측에서는) 자꾸 안 믿는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무안 지역이 피해를 보지



시·도지사와 함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전남도 입장에서는 중요한 국가시설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전남도도 (함께) 책임을 지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에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주시가 아닌 전남도의 부담"이라며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감히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기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는 것으로 하자"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치단체에서 풀려고 했지만 잘 안풀렸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무안군수나 무안군민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광주 공항을 놔두자는 건가"라고 묻자, 강 시장은 "민간·군공항 다 옮겨 통합공항을 만들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는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무안은 함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지사는 양쪽 입장을 조율해야 하지만 잘 안풀리고 광주·전남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그동안 문제를 풀기 위해, 군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책 강화를 건의했고 중앙에서도 동의했지만 실제 액션이나 국가지원 플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지사는 "시간이 없다. 연말까지 어떻게 할지 결론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획기적 대안을 만

들어서 (무안에서)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연말까지 책임지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신뢰가 문제다. 2018년 협약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협약을 안지켜서 기부 대 양여도 믿지 않고 (광주시의) 1조원 지원도 믿지 않는다"며 "국가주도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피해를 뛰어 넘는 획기적 보상이 있다면 군민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된다. 지금은 명분도 없고 설득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김군수가 '군민 설득 명분'을 언급하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군수의 발언 이후 이 대통령은 광주시의 1조원 지원 방안 추진 방식을 강 시장에게 물은 뒤 "무안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담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조원의 실현 가능성 문제는 따져봐야 하는데 약속을 진짜 지킬 수 있다면 무안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잡는 것 아닌가"라며 "무안이 공동사업자가 돼서 (기존 군공항 부지) 처분 이익을 무안 발전에 사용하는 걸로 기본적인 일개를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가 지원하겠다는 1조원, (개발 이익이)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러나 (무안에서) 계속 안 믿는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한) SPC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권을 무안이 갖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무안지역의 소음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속도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지역이 피해를 입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배준영·국힘, ‘광주사태’ 5·18 평화 발언 사죄하라”

광주 국회의원 전원 공동 규탄 성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재차 촉구

민형배·정진욱·안도결·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근택 등 광주 국회의원 8명은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평화 발언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이들은 "배 의원의 망언은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극우 파쇼집단의

다. 정정하겠다"라면서도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라며 조롱하는 말투와 태도를 보인 것을 강정이나 사과로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험구성원들의 망언과 평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가 5·18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망언을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잊혀 질만 하면 되풀이되는 그들의 망언 DNA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격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치유할 수 없는 역사적 불치병에 걸린 것이나 다를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 미 약속했고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5·18정신의 험구성문 수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평화와 왜곡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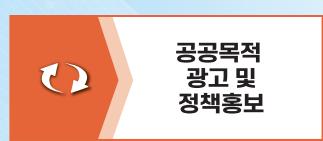
병원까지 3시간…25개 섬 정주어 건 최악 5면

남도인 물열전…충·효 상징 영사장 '최형한' 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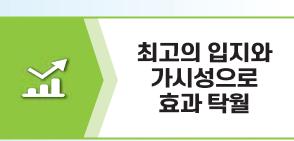
최형우, KBO 사상 첫 1,700타점 금자탑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 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일 100회 이상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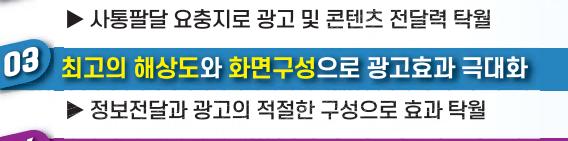
월 3,000회 이상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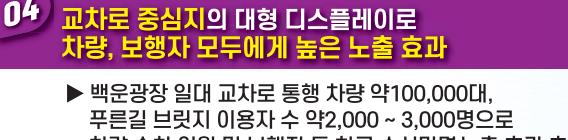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 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시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 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 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광고문의 062) 650-2070